조계종 2·3급 승가고시
2급 51명, 3급 286명 합격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중앙승가대에서 '2016년도 2급 및 3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올해 2급 고시에는 총 52명이 응시해 51명(비구 37명 · 비구니 14명)이 합격했으며, 3급 고시에는 총 288명이 응시해 286명(비구 125명 · 비구니 161명)이 합격했다.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로는 지산 스님(금산사)이 비구 수석, 원영 스님(해인사)이 비구니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수석에 신경 스님(통도사), 비구니 수석에 선효 스님(수덕사)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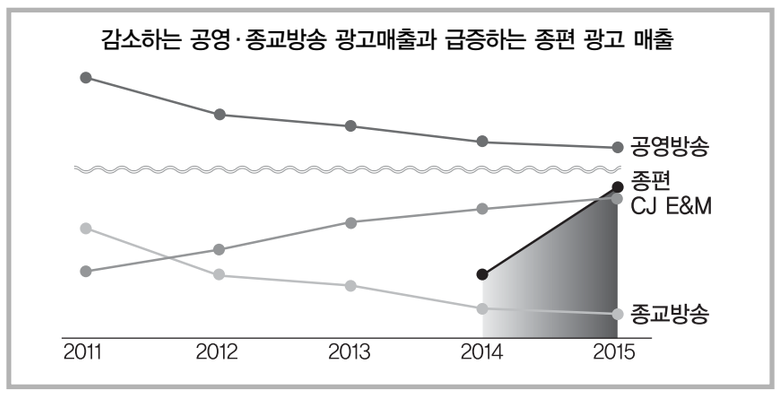
2급 고시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지산 스님은 "앞으로 수행자로서 삶을 잘 살라는 경책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원영 스님은 "도반과 함께 모여 논강을 하며 그룹 스터디를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승가고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3급 수석인 신경 스님은 "늦게 지원해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선효 스님은 "그간 수행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논술을 풀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교방송' 위기, 규제 철폐 · 공공성 확대 과제

국감서 매출급감 지적
전문가 대책 마련 촉구

불교방송 5년간 매출 30% 감소
지상파에 광고매출 묶인 구조
광고시장 정체 속 종편 급성장
경쟁 매몰, 공공성 훼손 우려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종합편성채널의 급성장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영미디어렙의 역할 강화와 종교방송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과 중소지역 방송사들이 급감하는 광고매출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이 본지에 제공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현황'(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종교방송은 2012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전체 628억여원 규모의 매출이 2012년 563억, 2013년 547억, 2014년 505억, 2015년 507억여원으로 23.9%의 큰폭으로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특히 BBS불교방송은 지난 5년간 30.2%, 평화방송은 34.8%나 광고매출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고매출 급감은 예견된 상황이다. 현재 BBS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미디어렙 체제로 광고 판매를 진행한다. KBS와 MBC, EBS와 BBS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YTN라디오 등을 묶은 공영미디어렙 코바코(KOBACO)와 SBS 및 지역 민방 9개사, OBS경인TV 등을 묶은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대표적이며, TV조선이 구성한 TV조선미디어렙, 채널A가 구성한 미디어렙A, JTBC가 구성한 JTBC미디어컴, MBN이 구성한 MBN미디어렙 등도 2014년 구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종편들의 영향력 확대로 기존 미디어렙의 광고매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의 광고매출 총액은 2011년 1조 6362억원에서 2012년 1조 4998억, 2013년 1조 4112억, 2014년 1조 2921억, 2015년 1조 3143억 여원으로 감소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 민영미디어렙도 2011년 7246억원에서 2012년 6824억원, 2013년 6523억원, 2014년 6019억원, 2015년 5918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종편 미디어렙 4개사의 총 매출액은 2014년 1588억여원에서 3223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케이블 채널인 CJ E&M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미현 CBS경영기획부 부장은 "지상파 전체에서 기업 광고가 감소하는 것이 1차 원인이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서 종교방송 분을 배정하는데 코바코 자체의 예산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장은 "자체적으로는 코바코가 매출의 70%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후원 등으로 매출을 충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도 옛날 같지 않다. 라디오 인터넷, TV 등 각 부서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치열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보 뒷전, 상업 경쟁 심화

이런 상황 속에 BBS불교방송과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계는 종편과 달리 지상파에만 있는 차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 등 35개 지역 · 라디오 방송사는 올해 9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간광고 금지 등으로 최소한의 제작비 조달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차별적 규제가 원인이며, 그 사이 유료방송만 크게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유재호 BBS불교방송 기획경영부장은 "전통적인 지상파가 위축된 상황에서 종편이 지상파를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종편 등이 지상파 규제의 틈을 비집고 성장하고 있다. 그 영향은 중소방송사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사들은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성과 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적자를 이제 막 벗어난 종편과 상업방송 등에서 향후 기금 출연 등 공공성 기여와 함께 공영미디어렙의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종교방송의 경우에는 본연의 포교프로그램과 함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 등의 차등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종교가 공공영역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 외에 종교방송계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 종교계 후원 등 광고매출 의존 탈피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日여성불자들 국내서 우호 다진다
한일 불교여성대회, 20~22일

한국과 일본 여성불자들이 국내에 모여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성지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진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오는 10월 20~22일 공주 마곡사서 '제11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와 함께 각국 여성불자들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린다.

대회는 첫날 충남 온양관광호텔서 환영만찬 · 문화공연이 열리며, 21일 마곡사서 본행사가 봉행된다. 이날 여래사 주지 동휘 스님의 만다라그리기 체험과 천안 각원사서 성지순례가 진행된다. 북촌한옥마을 일대 관광도 예정돼 있다. 대회에는 양국 임원을 비롯해 여성부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다. **윤호섭 기자**

"역사문화 훼손하는 현대차 GBC건립 반대"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 13일 규탄 가두행진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공동위원장 원명 · 지현, 이하 봉은사대책위)가 문화재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고 초고속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GBC건립을 반대하는 가두행진을 진행한데 이어 인허가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봉은사 대책위는 10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한전부지 졸속행정 재벌 특혜개발 저지 및 봉은사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기원법회'를 열었다. 법회 후 봉은사 신도들은 '1조 7000억에 봉은사 천년의 혼 팔아먹은 박원순 서울시장 즉각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GBC졸속 인허가와 건립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대책위는 특히 문화재 영향평가 미실시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며, 105층 GBC건설 추진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GBC 건립 후 봉은사 일조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시간 가량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절기에는 4시간 넘게 일조량이 줄어 봉은사 소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노덕현 기자**

"파리에서 한국불교를 알린다"
조계종, 10월 25~29일 '한불수교 130년 대표단' 프랑스 파견

사찰 음식 리셉션 개최
설정 스님 파리대 특강도

한불수교 130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5~29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50여 명으로 이뤄진 조계종 대표단은 5박 6일의 기간 동안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과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25일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26일 주프랑스 한국대사 초청 오찬,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을 소화한다. '사찰음식 만찬 및 리셉션'에서는 프랑스 정계, 문화 · 예술계와 조리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파리7대학에서의 도서 기증식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특히 2011년 이뤄진 프랑스 방문에서 한국불교에 대해 알고 싶지만 관련된 책을 찾기 어렵다는 프랑스 문화계의 의견을 받아 제작한 〈Korean Buddhism〉이 전달된다.

아울러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25~29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미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경, 연꽃만들기, 전통문양 채색 등 체험 프로그램과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7개 전통 산사의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27일~28일에는 프랑스 대표 조리교육기관인 '르 꼬르동 블루'와 '에꼴 페랑디'의 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특강도 진행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한국 전통문화를 유럽의 중심지 파리에 소개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이전법회

종 정 진성 법운
이 사 장 호월 화엄
총무원장 원경 삼주

귀의삼보 하옵니다.

초대법왕이신 일붕 존자님의 고귀한 유지를 받들어 온 (사)대한불교선교종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큰 걸음을 내 딛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총무원을 천안에서 대전으로 새롭게 이전하여 이전법회를 봉행합니다. 제방 대덕 큰스님들과 종도여러분의 수희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장 소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일 시 : 2016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전 화 :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후 원 :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일붕신문사